‘돌아온 4인치’ 아이폰SE, 국내서 잘 나갈까

아이폰6와 비슷한 성능

지원금 받아도 40만원대

요금 20%할인이 더 유리

■ 아이폰SE 통신사별 실구매가

단위:원		16GB	64GB
출고가(이통사 개통 시)		56만9800	69만9600
공기계		59만	73만
월 6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실구매가	LGU+	47만5500	60만5300
	SKT	49만1600	62만1400
	KT	48만9300	61만9100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SE’가 지난 10일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갔다. 중저가폰 치고 다소 비싼 편이지만 마니아층을 공략한 전략이 흥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아이폰SE는 애플이 아이폰5C 이후 2년 6개월 만에 들고나온 중저가 모델로, 화면 크기도 아이폰5 시리즈와 같은 4인치(가로 123.8㎜·세로 58.6㎜)다.

디자인은 재작년 나온 아이폰5s와 같지만, 성능은 최신 프리미엄 모델인 아이폰6s 수준이다.

애플 고유 A9칩과 M9 모션 코프로세서를 탑재, 앞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됐다.

아이폰6s 최첨단 기능 ‘라이브 포토’ 기능도 담겼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로즈 골드 등 4가지다.

애플은 아이폰SE의 출시 배경에 대해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이른바 ‘한뼘폰’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이폰 사용자 약 40%는 2년이 넘도록 ‘4인치 아이폰’(아이폰4·5 시리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중저가폰 트렌드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판매에 들어간 이날 아이폰SE 최저 판매가는 41~4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이폰SE의 출고가는 16GB 56만9800원, 64GB 69만96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LGU+가 가장 많다. 월 11만원 상당의 가장 비싼 데이터요금제를 쓸 경우 LGU+는 13만7000원, SKT 12만2000원, KT 11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SE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애플의 전작 프리미엄 모델 아이폰6s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지원금의 최고 15%를 더 주는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아이폰SE 16GB 실제 구매가격은 LGU+ 최저 41만2250원, SKT 42만9500원, KT 43만7600원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월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16GB를 기준으로 LG U+ 47만5500원, KT 48만9300원, SKT 49만1600원이다.

월 3만원대 요금제 선택시 LGU+ 52만2650원, KT 52만9600원, SKT 53만3000원으로 개통할 수 있다.

64GB 모델의 경우 월 6만원대 요금제를 쓸 때 실구매가가 SKT 62만1400원, KT 61만9100원, LGU+ 60만5300원이다.

16GB와 64GB 두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동일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같다.

최대 공시지원금이 13만7000원인 아이폰SE는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단말기를 따로 구매한 뒤 통신요금 20%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SKT에서 월 11만원대 요금제 ‘band 데이터 100’를 선택하면 24개월간 52만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공시지원금 12만2000원과 추가지원금 1만8300원을 합한 14만300원보다 38만7700원 더 저렴한 것이다.

6만원대와 3만원대 요금제에서도 24개월 약정기간 31만7000원, 15만8000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더 이롭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않고 공기계를 구매하면 16GB 59만원, 64GB 73만원이다. 미국에서 공기계 가격은 16GB 399달러(46만9000원), 64GB 499달러(58만6000원)으로 한국이 더 비싸다. 공기계 가격은 국가별 관세 등 세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박기웅기자 pboxer@

日정부, 저작권 보호 제도 검토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관심이 쏠린 인공지능(AI)이 창작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AI의 고도화에 대비해 AI가 만든 음악이나 일러스트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인간이 부여하고 인공지능은 주어진 단어와 형용사 등을 조합해 문장을 만드는 형식의 협업으로 쓴 소설이 일본의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지난 3월 알려진 바 있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사람에 의한 사상·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에 한정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AI 협업으로 쓴 소설의 경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의 ‘권리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AI의 창작 역량이 더욱 발전해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해낼 경우 누가 저작권을 가질지가 애매해진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 정비를 검토하게 됐다.

다만 AI가 만들 방대한 창작물 전체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경우 새로운 창작에 방해될 수 있어서 일본 정부는 시장에 저작물이 제공되면서 생긴 가치 등에 주목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방통위, 청소년 음란물 집중 심의키로

SNS·블로그 유포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와 텀블러 등 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로 유포되는 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해 중점 심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몸캠’ 등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외부로 유출된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모두 포함한다.

적발된 음란물은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외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해당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며, 악성 유포자와 음란물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을 유인·협박해 몸캠과 자위행위 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적잖고, 이런 음란물이 당국 추적이 어려운 국외 서비스를 통해 대거 퍼지고 있다”며 “청소년 성(性) 착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번 심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가 과거 적발한 음란물 유포 사례를 보면 ▲‘17세 남자 노예녀 구함’ 문구와 함께 남자 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중고딩 자영 팔아요’란 광고 글과 함께 여자 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을 현금이나 문화 상품권을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 내년부터 드론 교통체계 마련

5년간 관계부처 437억 투자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5년 간 437억 원을 투자해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의 백신을 개발하고, 테러에 쓰일 수 있는 유해가스를 탐지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도 중앙행정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4일 열렸던 제11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2017년 추진키로 했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간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우선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 눈에 띈다. 약 150m 상공에서 150kg 이하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비행장치를 지상에서 감시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 등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미래부와 경찰청이 참여하며 5년 동안 437억 원을 투자한다.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도 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진단 기술과 치료제, 소독제, 백신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며 예산과 기간은 조정 중이다.

‘국민 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도 선정됐다. 재난과 범죄, 테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가스를 탐지하는 이동형 기체 포집 장치를 개발하고 통합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주관으로 미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며 7년간 총 489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들은 부처별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 2017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700㎡ 건물2005㎡ ▶감정가 19억5천8백만원 최저가 13억7천만원 1층수퍼 2~8층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 7억9천6백만원 최저가 7억9천6백만원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대지 1488㎡ 건물 2075㎡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7억3백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2349㎡ ▶감정가14억 최저가 6억2천7백만원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저수지앞 전원주택단지 토지 554㎡ ▶감정가 1억1천 최저가 6천2백만원 지대높음 전망좋음
★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2층 전원주택 대지 698㎡ 건물230㎡ ▶감정가 1억3천1백만원 최저가 9천1백만원 신축건물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정가 12억1천6백 최저가 8억5천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3개 2층 사무실 대지210㎡ 건물152㎡ ▶감정가 1억8천6백만원 최저가 1억8천6백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감정가 915백만원 최저가 915백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면사무소 인근 답 473㎡ ▶감정가 29백만원 최저가 29백만원 계획관리지역 도로변
★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뒤편 창고 대지 350㎡ 건물177㎡ ▶감정가 240백만원 최저가 240백만원

수익형 일반매매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매매 5억8천(조정가)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흥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율 ▶매매27억원(융13억포함)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억(융28억포함), 수익성 월8천정도

투자추천 일반매매

★ 광주 북구 운암동 대지469㎡ 건물 1781㎡ 지하1층~지상5층 대로변 준주거지역 ▶매매 15억(융7억4천포함)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억3천, 월2천7백)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422㎡6층 모텔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융4억8천 추가3억대출가능)
★광주 광산구 월계동 숭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집방3개 ▶매매6억3천 대출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20년경력 010-6211-4585 조해원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